

Vannoy 박사 , Samuels, 강의 1

© 2011, Dr. Robert Vannoy 및 Ted Hildebrandt

제가 4부로 구성된 강의에서 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 상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 중요한 구약성경 책에 담긴 내용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인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 상하 책에 대한 4부 강의 중 첫 번째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읽는 자료의 문학적 특성이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사무엘 상하서는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의 역사서로 알려진 책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역사서는 예를 들어 율법서나 시가서, 지혜 문학과는 다른 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 특성에 적합한 독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에 대한 이 네 가지 강의에서 저는 구약성경의 역사적 기록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약성경 역사서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이 사무엘 상하서의 서사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어떤 종류의 역사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약성경 역사학의 특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서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다음 구약성경 역사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무엘상하를 적절한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약성경 역사학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역사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책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서, 사사기, 룯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는데, 모두

유배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게다가 역대상하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 시작하여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통치자 키루스의 포고령으로 끝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해방시켰지만, 역대기 상하의 주된 초점은 이스라엘의 군주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배 후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경험을 묘사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한 에스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는 엄청난 양의 역사적 서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연히 했던 히브리어 성경의 페이지 번호를 세어 보면, 제가 방금 언급한 책들이 구약성경의 약 40%를 구성합니다. 여기에 오경의 역사적 서사를 더하면, 오경에는 많은 역사적 서사가 있고, 이사야서 36~39장도 역사적 서사이며, 요나서와 욥기도 역사적 서사로 분류하면, 구약성경 내용의 50% 이상이 역사적 서사입니다.

구약성서에 역사적 자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역사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가졌을까요? 고대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은 왜 다른 고대 민족보다 역사적 경험을 기록하고 기억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컸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다른 고대 민족보다 역사와 역사적 전통에 더 큰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왜 독특한 역사 개념과 역사적 글쓰기를 발전시켰을까요?

헨드리쿠스 Berkhoff 는 그의 책 *Christ the Meaning of History* 에서 역사가 목표 지향적이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우리의 감각에 대해 그리스나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eerhardus 보스 는 그의 책인 『성경 신학』 에서 "역사 기록의 진정한 원리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만드는 것, 즉 계획을 발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리스 역사가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처음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서클들 사이의 활동에는 신성한 역사 기록, 즉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같은 책의 제작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책에서 사건의 진행은 전개되는 신성한 계획의 빛에 놓인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초기 예언자라고 부르는 고대의 정경적 관습에서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G. 어니스트 라이트는 이 책인 『행동하는 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독특한 관심”이라고 묘사한 것에 주목했으며, 구약성서는 영웅과 왕들의 개별적인 공적이나 바빌로니아 연대기와 같은 법정 패널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편적 역사의 통일성과 의미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건의 연대기가 설정되고 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바로 이 보편적 역사의 틀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형적 역사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목적이 있고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역사적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역사가 진보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라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체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유대-기독교적 생각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역사가 순환적이고 자연적 과정의 순환적 특성, 예를 들어 계절과 태양의 규칙적인 일출과 일몰에 기반을 두거나, 진자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게 의미 있는 패턴 없이 끊임없이 앞뒤로 흔들리는 진동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 고대 민족과 달리 보편적 역사를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G. 어니스트 라이트는 수년 전에 그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이 특정한 이스라엘인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견해의 진정한 이유를 결코 확신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가관이 생겨난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녀를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추론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초기적이고 근본적인 추론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인간의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라이트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답변은 다른 고대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슷한 추론을 하지 않고, 또한 의미 있는 역사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저는 이스라엘이 독특한 역사적 감각을 발달시켰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태양신, 폭풍신, 다산의 신 등을 자연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사전에 선포되었고 이후에 선지자들에 의해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이트가 이 문제를 분석할 때 저지른 오류는 우리가 "말씀 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존재와 중요성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신성한 말씀은 라이트의 분석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성한 계시를 역사적 사건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경험을 통한 계시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행동, 즉 말씀과 사건 모두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는 사건으로부터 맹목적으로 해석하여 생겨난 말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라이트가 말했듯이 역사적 경험에서 추론하여 발견됩니다. 오히려 구약의 계시는 사건에 의해 나중에 확인되는 말씀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다음,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행함으로써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예는 구약성서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됩니다. Geerhardus가 말했듯이 보스는 "성경 신학의 개념"이라는 에세이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없다면, 말씀은 공허할 것이다"라고 잘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없다면, 그의 말씀은 공허할 것이지만, 그의 말씀이 없다면, 그의 행위는 맹목적인 것이다." 즉, 말씀의 계시가 없다면 역사의 의미는 항상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을 둘러보고 오늘날 역사적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스스로 역사를 해석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말씀이 없다면, 그의 행위는 맹목적인 것입니다.

때때로 구약의 서사에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종교적이거나 신학적 관점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역사적 서사의 종교적 또는 신학적 특성은 구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역사적 서사에서 인과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1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일곱 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더라"라고 읽습니다. 사사기 13:1에도 매우 유사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더라”

그것을 읽을 때, 당신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과정을 설명하는 세부 사항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적 힘은 무엇이었는가? 사회적 힘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한 군사적 요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사기 6:1과 13:1에 묘사된 것과 같은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정보가 자주 없기 때문에 구약의 서사가 합법적인 역사적 기록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한 우려를 평가할 때, 구약의 중심 초점이 다른 역사적 기록과는 완전히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서사의 중심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는 제 생각에 구원의 역사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서사에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시와 구원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의 사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성경적 서사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 사역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넘어가거나 구속 역사에서 더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몇 마디로만 언급됩니다.

때때로 구약성서 역사적 서술의 이러한 특성은 일종의 종교적 또는 신학적 편견을 각인시키며, 이로 인해 “객관적 역사서”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적 저술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적 기록이 뚜렷한 종교적 또는 신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록자들의 목적은 그들이 묘사한 사건에 대한 어떤 종류의 초연하거나 중립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종류의 완전히

중립적인 객관적 보고라는 의미에서 “객관적인 역사학”과 같은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역사 기록은 해석적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역사학이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역사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역사 기록은 사건을 자료 선택과 그 중요성 또는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지배할 특정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역사 기록도 엄격하게 객관적이지 않으며, 역사 기록은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역사 기록이 신뢰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서의 서사와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고된 것들의 선택과 평가를 결정하는 종교적 또는 신학적 지향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인과 관계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서사의 그러한 특징은 역사적 정보의 출처로서의 합법성을 어떤 식으로든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요점은 성경 서사가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 지적했듯이 구약성서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강조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이 묘사하는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묘사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비이성적인 도약이 되고 헛됩니다. 그것은 공허하고 자기기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역사에서의 행동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니라”고 말하면서 매우 간결하고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 역사에서 행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에

대한 믿을 만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무엇보다도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선지자 가 자기의 해석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은 본래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선지자 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말한 것임이니라”(베드로후서 1:21).

이제 구약성경의 역사적 기록의 본질을 살펴보는 일종의 배경을 가지고, 나는 사무엘상하를 구속적 역사적 관점에서 읽는 것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역사학의 특성은 구속적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적 역사적 서사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책 자체에 대한 몇 가지 서론적 코멘트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책의 이름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이 긴 사무엘상하의 책의 첫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사무엘상하에는 55장이 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31장, 사무엘하에는 24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책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의 첫 두 왕으로 기름부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왕권을 확립하고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인 사울과 다윗의 통치에 대한 설명이 사무엘상하의 전부입니다. 사무엘이 이 책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죽음이 사무엘상 2:1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누구였든 사무엘과 당시 다른 선지자들이 목격했거나 잘 알고 있던 사건에 관해 기록한 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역대상 29:29과 30에서 “다윗의 통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건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하가 아니라 사무엘의 손에서 기록된 자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

나단과 갓의 기록 역시 다윗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통치와 권세,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땅의 왕국들을 둘러싼 상황에 관한 세부 사항도 포함했습니다.

사무엘상하권은 원래 한 권의 책 또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우리가 아는 한,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한 일이며, 그들이 두 권으로 나누었을 때,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이 사무엘상을 나누고 마무리하기에 적절한 장소인 듯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묘사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 책들의 이름이나 제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칠십인역에서 왕국서 상하권으로 지정되었고, 우리가 사무엘상하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왕국서 상하권으로 불렸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상하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하권으로 불렸고, 불가타 번역에서는 약간 수정하여 열왕기상하권, 열왕기상하권, 열왕기상하권으로 불렸고, 우리가 열왕기상하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하권으로 불렸고, 불가타 번역에서는 약간 수정하여 열왕기상하권, 열왕기상하권, 열왕기상하권으로 불렸고, 열왕기상하권으로 불렸던 것이 열왕기상하권으로 불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언젠가 도서관에 가서 열왕기상하권에 대한 해설을 보고 "어디에 있지? 내 성경에는 그 책이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 불가타의 제목에 대한 오래된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제목의 책의 명칭은 유대교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은 책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방식일 뿐입니다.

이제 사무엘상하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가 보기에 이 책의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가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룯기가 있지만, 사무엘은 사사기와 열왕기상하 사이에 있으며,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죽기 직전에 끝나는 역사 기간을 다룹니다. 다윗의 죽음은 사실 열왕기상의 앞부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약 1100-970년, 130년의 기간을 다룹니다.

이 책은 이 기간의 자세한 정치적 역사를 제공하지 않지만, 대부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세 명의 저명한 지도자, 즉 사무엘, 사울, 다윗을 중심으로 한 전기적 이야기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서사를 하나로 묶고 책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왕권과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사무엘 상 8장에서 사람들이 요구한 첫 번째 친족 관계가 언약을 거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무엘 상 10:17-27과 11; 14:12-25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엘이 제정한 왕권은 언약과 일치했습니다. 셋째, 사울이 행한 왕권은 언약적 이상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그 핵심 장은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넷째, 다윗이 행한 왕권은 불완전했지만 언약적 왕의 이상을 진정으로 표현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사무엘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 상하에서 왕권과 언약이라는 주제의 네 가지 전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이 서론적 주석을 완료한 후에요. 두 권의 책에 대한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권의 책 전체를 세 가지 주요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의 삶과 관련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 1-12장에서 사무엘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탄생, 선지자가 됨, 결국 사울이 왕이 되도록 기름부음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 13-31장에서 사울은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그는 8-12장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13장에서 실제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13장에서 책의 끝까지는 주로 사울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특정 지점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의 하락 추세와 다윗의 왕위 등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24장에서 다윗은 가장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12장, 사무엘; 사무엘상 13-31장, 사울; 사무엘하 전체, 다윗을 살펴보면, 이 세 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각각 17, 34, 45페이지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저는 그 자체로 저자가 우리에게 다윗의 통치를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서론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 상하에서 발견되는 구속사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진전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역사적 자료가 구속사라고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사무엘 상하에서 구속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두드러진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엘은 약속의 땅의 범위에 관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언급하고 돌아와서 각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여러분은 약속의 땅의 범위에 관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사무엘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수립된 것을 설명하고, 기름부음을 왕권과 연관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그것이 중요한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상 사무엘기와 하 사무엘기에서 발견되는 구속 역사의 전진 운동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닌 세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무엘 하권은 약속의 땅의 범위에 관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제시되었을 때 약속된 땅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창세기 12:7). 이 땅의 경계가 설명된 창세기 15:18-21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창세기 17:8에서 더 확증되었고, 민수기 34:1-12, 신명기 1:7, 신명기 11:24, 여호수아 1:4, 시편 105:8-11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곳에서 반복되었으며, 다른 곳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정복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처음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23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기업으로 주니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글쎄, 성취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그 초기 정복에도 여전히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각 지파가 각자의 영토에서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까지 뻗어 있는 경계를 설명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다윗의 통치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정복 목록이 나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을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했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8장에서 그것을 읽을 시간을 갖지 않았지만, 그 기록은 거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 다윗이 그의 왕국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거기에서 경계가 유프라테스까지 뻗어 있다고 읽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21과 24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다윗의 정복 목록이 있는 다소 평범한 진술에도 또 다른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충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토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아마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위대한 나라들, 이집트, 바빌로니아, 시리아, 헷족속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약해져서 그들의 왕국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여부스족의 도시인 시온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5장에서 그것에 대해 읽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읽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정치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 행위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다윗이 여전히 야훼를 그 땅의 최고 통치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주어진 율법판이 들어 있는 언약궤가 야훼의 왕좌로 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인간 통치자이자 인간 왕이었지만,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그가 야훼를 이스라엘의 신성한 왕이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주권자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구약시대의 나머지 기간과 신약시대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왕권에 대해 논의할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구속 역사의 진전과 관련하여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수립되고 기름부음이 왕권과 연관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주께서 기름부으신 자"라는 문구가 왕과 동의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영어 단어 "기름부음받은 자"와 "메시아"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 *meshia h* 의 번역 및 음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름부음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어근 *mashah* 에서 유래한 기름부음받은 자를 의미 하는 명사 입니다. 따라서 영어 단어 "기름부음받은 자"와 "메시아"는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어에서 *christos*는 칠십인역과 신약성경에서 모두 *meshia h*를 번역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 이 그리스어 *christos* 는 "기름을 바르다"는 뜻의 그리스어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물론 영어 성경 버전에서 "그리스도"로 음역되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사무엘상하에서 최초의 성경적 배경을 찾습니다. 이는 확실히 매우 중요한 성경적 개념인 메시아적 사상의 뿌리가 사무엘상하의 서사와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이야기는 사울의 경우 사무엘 상 9:1-10, 16, 다윗의 경우 사무엘 상 16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명칭인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자는 사무엘 상하에서 여러 번 찾을 수 있습니다 . 사무엘 상 2:10, 24:10, 26:9, 사무엘 하 1:14, 1:16, 19:21, 22:51, 23:1 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수립되는 것은 사전에 예상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것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에게서 왕이

나와 그들의 후손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약속에서 암시됩니다(창세기 17:6, 16). 그것은 야곱이 유다 지파에 관해 예언할 때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에게 임할 때까지라”(창세기 49:10)고 말했을 때 더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발람은 민수기 24:7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왕은 아각 보다 더 크고 그들의 왕국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24:7-19에서 그는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홀이 일어나, 모압의 이마를 부수고, 에덴이 정복당하고,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7장에서 모압 평야에서 시나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에 왕권의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하면서 소위 “왕의 법”을 포함시켰습니다.

사무엘 상권 초반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에게 권능을 주시고 기름부음받은 자의 힘을 증가시키실 날을 기대했습니다. 사무엘 상권 2:10에서 그녀는 왕들이 기름부음받기 전에도 “기름부음받은 자와 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래의 위대한 메시아 왕을 예상하고 그를 가리키는 왕의 계보를 갖기를 의도하셨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권 8-12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에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12장은 이스라엘의 왕권 수립을 5개의 문학적 단위로 설명합니다. 8-12장의 장 구분은 실제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서사적 단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9:1~10:16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비밀리에 왕으로 기름부음합니다. 서사적 단위가 있습니다. 10:17~27에서 사무엘은 미스바 에 집회를 소집하여 사울을 공개적으로 왕으로 선출합니다. 11장 1~13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승리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11:14~12:25에서 사울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길갈 에서 열도록 요청한 언약 갱신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목적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주변 나라들과 같은 왕을 주라고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5과 사무엘상 8:19, 20입니다. 하지만 이 장의 사건은 7장에서 묘사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납니다. 7장에서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승리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재판관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8장에서 그는 이미 노령입니다. 우리는 8절 1절에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법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임명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들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 8:2, 3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백성에게 주라고 요청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5절 -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은 왕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편리한 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제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권 정치를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묘사한 역할은 그들의 가장 깊은 동기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그 요청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6절에서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요청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 즉, 자신이 더 이상 국가를 위한 인간적 지도력을 제공할 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암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직접적인 신권 정치, 즉 여호와께서만 이스라엘의 신성한 왕으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그 요청은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저 그녀 앞에 나가서 전투에서 그녀를 인도할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암몬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들 앞에 나가서 전투에서 그들을 인도할 왕을 원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 태도는 여호와의 왕권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7절에서 명확히 언급되었고, 10:19, 12:12, 12:17, 12:19에서도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주제가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왕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그것은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는 바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4:2-8의 고백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온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쳐부수시고 우리 조상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칼로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준 것은 그들 자신의 강한 팔이 아니라 당신의 오른손과 강한 팔과 당신 얼굴에서 나오는 눈부신 빛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승리를 명령하십니다. 당신의 힘으로만 우리는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고, 당신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나는 활을 신뢰하지 않고, 내 칼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욕되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는 종일 당신께

영광을 돌리고 끊임없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어야 했지만, 이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주변 민족들과 같은 왕이 나가서 그들을 전쟁에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통치를 더욱 눈에 띄고, 더 신뢰할 수 있고, 국가의 안보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인간의 제도로 대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무엘에게 핵심 문제는 그들이 사무엘을, 다시 말해 그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7절: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는 열방과 같은 왕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수반하는지에 대해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면, 그 당시의 전형적인 가나안 도시 국가 왕의 일상적인 관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 왕들을 두드러지고 명확하게 특징짓는 단어는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11, 13, 14, 16절에서 네 번 사용되었고, 몇 번 더 암시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들에게 주변 민족들과 같은 왕이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갈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11절). 그는 그들의 딸들을 데려갈 것입니다(13절). 그는 그들의 밭과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14절). 그는 그들의 곡식의 십분의 일을 가져갈 것입니다(15절). 그는 남자 와 여자 종들을 데려갈 것입니다(16절). 그는 그들의 가축과 나귀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16절). 그는 그들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가져갈 것입니다(17절).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게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경고는 무시당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지도자들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5절과 20절을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를 재판하고 전쟁에서 인도할”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이유로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장에서 세 번이나 사무엘에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9, 22절). 여기서 주님은 사람들의 사악한 요청에 동의했지만, 그들의 사악한 열망을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할 무언가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떠올립니다. “너희는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지금과 같이 되게 하셨으니 곧 많은 생명을 구원하심이니라.” 사무엘이 마침내 왕권을 확립하고 사울이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요청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왕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정의한 이스라엘의 왕권은 언약적 왕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의 의무와 책임이 주변 국가의 왕의 의무와 책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왕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언약의 관리에 인간의 왕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 사무엘 상 8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시작을 알립니다. 왕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목적에 통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욱 전개되면서 인간 왕들의 지속적인 실패가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과 신을 겸비한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언서에서 그 주제가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뿌리이자 후손인 예수님이 진정한 언약적 왕의 이상을 완전히 성취할 것입니다(계 22:16). 모든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고린도 전서 15:24).

이
필사 그리고 Paul Fey가 편집했습니다.
Ted Hildebrandt 편집